



## 삼위일체 하느님과 자연세계 (2)

자연세계와 그 안의 생명체들이 '관계'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학과 어떻게 연관될까요? 생태신학은 자연세계의 관계적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관계적 본성을 지니신 창조주이시므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관계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적 본성이란 무엇을 의미 할까요?

자연세계 안에 수많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 위격은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격의 존재 그리고 그 위격과 맺는 관계에 따라 정의되고 이해 됩니다. 부모와 자녀를 예로 들면, '부모'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를 전제해서 정의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부모'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부는 그분에게서 나신 아들 곧 성자가 있기에 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

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성부와와 관계 안에서 성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신학에서 '사랑'이라는 호칭으로 자주 불리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두 주체를 전제하므로 성령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 분으로서 두 위격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신학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서로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라 친교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이를 '상호내주'(相互內住)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해서 무척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상호내주는 마치 이 대사처럼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서로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있고, 성자와 성령 각각 안에도 다른 두 위격이 함께 있음으로써 세 위격이 같은 신적 본성을 누리며 함께 활동하는 한 분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세 위격이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구별되면서 동시에 친교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관계적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는 바로 그러한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적 모습을 띄며 그것에 의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